

중세국어

0에서 1까지, 순서대로 쌓는 국어문법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문법 공부는 건물 짓는 일과 같습니다.

건물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먼저 땅을 파고, 기둥을 박고, 벽을 세우고, 방을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설비와 인테리어를 합니다.

벽돌 하나는 벽이 되지 못합니다.

옆의 벽돌과 맞물려야 벽이 됩니다.

음운은 형태소와, 형태소는 문장과 맞닿아 있고,

어간은 어근과, 어미는 접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제일 핵심적인 것부터 쌓아갑니다.

그렇게 전체를 열 바퀴 돌고 나면,

비워둔 자리는 반드시 채워집니다.

이 책을 펴기 전에

이 책은 구매하신 분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허용되는 것

- 구매하신 본인의 학습에 쓰는 것
- 본인이 보기 위해 인쇄하는 것
-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자기 말로 정리해 쓰는 것

금지되는 것

- 파일을 타인에게 전달·공유하는 것 (메신저·메일·클라우드 링크 포함)
- 블로그·카페·자료실·SNS 등 온라인에 올리는 것
- 단체·학원·학교에서 복사하여 배포하는 것
- 내용을 재편집·재판매하거나 다른 교재에 옮겨 실는 것
- 이미지로 촬영·캡처하여 배포하는 것

저작권법 제136조 — 저작재산권을 복제·배포·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한 사람이 오래 붙들고 만든 것입니다.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책을 알려주시되 파일은 보내지 말아 주세요. 그것이 다음 책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을 만든 이유

하나 · 효율

방학마다 문법 특강이 열립니다. 여덟 번을 배우고 마지막 시간에 체언이 무엇이나 물으면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장 시험 범위가 아니면 붙잡을 이유가 없고, 이유가 없으면 남지 않습니다.

둘 · 순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음운 다음이 곧바로 품사입니다. 형태소를 모르는 채로 어간과 어근을 가르라는 셈입니다.

셋 · 부담

처음부터 너무 두껍게 들어갑니다. 자음군 단순화의 예외까지 한꺼번에 넣으니 이해가 아니라 소화불량이 됩니다. 불규칙 활용을 첫 달에 만나면 대개 거기서 놓습니다.

넷 · 범위

학교는 전 범위를 하지 않습니다. 1학기에 음운 변동과 문법 요소, 2학기에 한글 맞춤법과 중세국어. 단어와 문장은 비어 있는 채로 학년이 올라갑니다.

전 범위가 한꺼번에 필요해지는 때는 고2입니다. 비워둔 자리가 그때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각 권을 따로 뒀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권만 보셔도 막히지 않게 썼습니다.

쓰면서 참고한 것

학력평가와 수능의 문법 기출, 지문형 문항 전체를 훑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별 교사용 교과서와 자습서를 나란히 놓고 대조했습니다. 여러 교과서에 거듭 나오는 것일수록 본질에 가깝다고 보고, 그런 것을 앞쪽에 두었습니다.

문제 연습은 기출문제집으로 하세요.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을 권합니다. 이 책의 확인문제는 단계마다 대여섯 개뿐입니다. 방금 배운 것을 알고 넘어가는지 확인하는 장치이지 연습량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 단원을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전체를 열 바퀴 돌면서 한 겹씩 올립니다.

구간		하는 일
0 ~ 0.2	땅 파기	바닥을 깊게 팝니다
0.3 ~ 0.6	기둥 세우기	뼈대를 올립니다
0.7 ~ 0.9	방 만들기	벽을 치고 나눕니다
1	인테리어	마지막 손질을 합니다

각 단계 머리에 몇 바퀴째이고 어느 구간인지 적어뒀습니다.

이 책이 문법을 바라보는 세 가지 원칙

1. 문법은 온통 기준입니다

자음과 모음을 나누는 것도 기준입니다.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를 나누는 것도, 품사와 문장 성분을 나누는 것도 전부 기준이에요.

기준은 자격을 줍니다. 한 사람이 남자이면서 선생님이면서 아버지인 것과 같습니다. 기준이 다르면 이름도 달라져요.

'꽃' 하나를 봅시다.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이름
무엇을 나타내는가 (의미)	명사
문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기능)	체언
모양이 변하는가 (형태)	불변어
문장 속 자리는 어디인가 (성분)	주어

넷 다 맞습니다. 하나의 단어에 이름이 네 개 붙은 거예요.

시험에서 틀리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기준을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먹-"은 실질 형태소인가?"라는 질문에 "혼자 못 쓰니까 아닙니다"라고 답하면 틀립니다. **혼자 쓸 수 있느냐는 다른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글자가 같다고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군밤과 군소리, 묻어와 물어, 그림을 그림 — 이 책에는 이런 짝이 계속 나옵니다. **먼저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묻는 습관**이 문법 공부의 절반입니다.

2. 정의를 정확하게 읽습니다

읽고 [일꼬]

닭고기 [닥꼬기]

같은 받침 **ㄹ**인데 발음이 같립니다. 왜 그럴까요.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겹받침 **ㄹ**은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 발음 **ㄹ**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읽고'는 **용언의 어간** '읽-'에 **어미** '-고'가 붙은 말입니다. '다만' 조항에 정확히 걸려요. 그래서 [**일꼬**].

'닭고기'의 '닭'은 명사고, '고기'는 어미가 아닙니다. **애초에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칙대로 [**닥꼬기**].

예외를 외운 게 아니라 예외의 조건을 읽은 겁니다. '용언의 어간'과 '어미'라는 두 마디를 흘려보내면, 두 발음이 왜 다른지는 영영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용어가 나올 때마다 뜻부터 풁니다. **어간(語幹)**의 幹은 줄기, **어미(語尾)**의 尾는 꼬리예요. 줄기는 그대로 있고 꼬리는 움직입니다. 이걸 알면 '변하지 않는 부분·변하는 부분'을 따로 외울 일이 없습니다.

3. 예시가 실력입니다

문법은 규칙을 외우는 과목이 아닙니다. **예시를 많이 본 사람이 이깁니다.**

규칙 한 줄은 시험장에서 잘 안 떠오릅니다. 그런데 예시를 수십 개 본 학생은 **처음 보는 단어도 같은 원리로 잘라냅니다.**

그중에서도 **짜를 이루는 예시**가 핵심입니다. 하나만 보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나란히 놓으면 기준이 보여요.

짜	무엇이 같았나
읽고 [일꼬] ↔ 닥고기 [닥꼬기]	뒤가 어미냐 아니냐
순가락 ↔ 젓가락	ㄹ이 ㄷ으로 변한 말이나, 사이시옷이나
돋보기 ↔ 돛자리	ㄷ으로 적을 근거가 있느냐
군밤 ↔ 군소리	구운 밤이나, 쓸데없는 말이나
땅에 묻어 ↔ 길을 묻어	규칙이나 ㄷ 불규칙이나
그림을 그림	명사냐 명사형이나

같은 자리에 놓고 하나만 다르게 — 이 책이 예시를 고르는 방식입니다. 눈으로 훑지 말고 소리 내서 하나씩 확인하세요.

시리즈 전체 지도

권	제목	이 책이 답하는 질문
1	음운론	왜 쓴 대로 읽지 않을까
2	형태론	이 말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3	품사론	이 말은 무엇일까
4	문장론	이 말들이 어떻게 문장이 될까
5	중세국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을까
6	규범론	어떻게 쓰고 읽어야 할까
7	담화론	문장은 맞는데 왜 말이 안 통할까

각 권은 따로 사서 봐도 완결됩니다. 필요한 개념은 그 권 안에서 다시 세워요. 다만 순서대로 보시면 앞 권에서 비워둔 자리가 뒷 권에서 채워지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 권에 대하여 — 중세국어

이 책이 답하는 질문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을까

1권부터 4권까지 **지금의 국어**를 봤습니다. 소리, 단어, 품사, 문장이요.

이 책은 **그것들이 어떻게 지금 모습이 되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앞 권에서 "왜 이렇게 헛갈리게 생겼을까" 싶었던 것들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이 책만의 성격 — 앞 권의 의문이 풀립니다

이 책은 **회수하는 책**입니다. 네 권에서 미뤄뒀던 것들이 여기서 답을 얻어요.

앞 권에서	여기서
1권 구개음화	중세에는 없었습니다
1권 눈[目] / 눈:[雪]의 길이	원래는 높낮이 였습니다
2권 어리다 · 어엿브다	원래 뜻이 여기 있습니다
3권 '그림을 그림'이 헛갈리는 이유	중세에는 표기가 달랐습니다

특히 **마지막 것이 이 책의 백미**입니다. 3권에서 그렇게 애먹었던 문제가 **원래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 책만의 성격 —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중세국어는 처음 보면 무섭습니다**. 글자도 낯설고 점도 찍혀 있고요.

그런데 겁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바뀐 것보다 안 바뀐 것이 훨씬 많거든요**.

불휘 기픈 남곤
→ 뿌리 깊은 나무는

읽어보세요. 거의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낯선 것만 골라서 배우면 됩니다**.

어디에 힘을 주었을까요

구간	무엇
0 ~ 0.1	훈민정음 이전 — 글자가 없던 시절
0.2 ~ 0.5	소리와 표기 — 제자 원리, 사라진 글자, 변천
0.6 ~ 0.7	문법 — 체언·조사·어미·높임
0.8 ~ 1	작품 읽기

앞의 여덟 단계는 뒤의 세 단계를 위한 준비입니다. 시험에는 결국 **지문**이 나오니까요.

고비는 어디일까요

0.4 표기법입니다. 이어적기·끊어적기·거듭적기, 종성 규정, 어두자음군, 동국정운식 표기가 몰려 있어요.

그런데 원리는 하나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을 것인가, 형태를 밝혀 적을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표기법 전체를 지배합니다. 중세에는 소리 쪽이었고, 지금은 형태 쪽이에요. 그 사이를 오간 기록이 표기법의 역사입니다.

앞 권과의 관계

앞 권을 안 보셨어도 읽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필요한 개념은 그때그때 다시 세워요.

다만 1~4권을 보신 분은 **곳곳에서 "아, 그거"** 하실 겁니다. 이 책은 그러라고 만든 책이거든요.

0 중세국어를 왜 배울까요

START

땅 파기

옛 도면을 꺼냅니다. 지금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보려고요.



강의 0

① 시대 구분

휴대폰 카메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립니다.

솔직히 이런 생각 드시죠. "지금 쓰지도 않는 말을 왜 배우지?"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① 지금의 국어를 설명해주기 때문입니다

앞 권에서 **이상하다** 싶었던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해돋이'는 [해도지]가 될까
왜 '눈'은 길게도 짧게도 읽을까
왜 '그림을 그림'은 이렇게 헛갈릴까

전부 역사가 답입니다. 지금 이상해 보이는 것들은 **옛날에는 이상하지 않았어요.** 변하는 과정에서 생긴 자국들이죠.

집에 이상한 계단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왜 저기 있나 싶은데, **옛날 도면을 보면** 원래 거기 벽이 있었던 겁니다.

이 책이 그 도면이에요.

② 시험에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중세국어는 언제나 지문으로 출제됩니다. 짧은 옛글을 주고 문법을 묻는 형태예요.

그러니 목표가 분명합니다.

옛글을 읽고 분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책의 마지막 세 단계가 그것이고, 앞의 여덟 단계는 그 준비고요.

시대 구분

우리말의 역사를 다섯 토막으로 나눕니다.

시대	언제	기준이 되는 사건
고대	~918	고구려·백제·신라
중세 전기	918 ~ 1392	고려 건국 ~ 조선 건국
중세 후기 ★★★★★	1443 ~ 1592	훈민정음 창제 ~ 임진왜란
근대	1592 ~ 1894	임진왜란 ~ 갑오개혁
현대	1894 ~	갑오개혁 이후

★ 우리가 볼 곳은 딱 여기입니다

중세 후기 — 15세기 중반부터 16세기 말까지

150년 남짓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중세국어는 거의 전부 이 구간이에요.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직후라서 그렇습니다.

글자가 생기자 사람들이 우리말을 **소리 그대로 적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한자로 어렵게 흉내만 냈거든요.

그러니 **우리말의 실제 모습이 처음 기록된 시기**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언어가 크게 변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끊어요.

확인문제 0

1. 중세국어를 배우는 두 가지 이유를 쓰세요.
2. 시대 구분 다섯을 순서대로 쓰세요.
3. 중세 후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그 기준이 된 사건은?
4. 왜 중세 후기가 특히 중요한지 설명하세요.

START CLEAR

중세국어를 왜 배울까요

다음 01 · 차자 표기 — 글자가 없던 시절

남은 것 10 / 10

0.1 차자 표기 — 글자가 없던 시절

글자가 없던 시절, 남의 연장으로 어떻게 지었는지 봅니다.

교재
단독

이 단계는 영상 강의가 없습니다

교재만으로 충분한 분량이라 따로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하나 준비하시고 소리 내어 읽으시면 됩니다.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게 **1443년**입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적었을까요.

우리에게 **말은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꽤 달랐겠지만요.

그런데 **글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중국에서 **글자를 빌려 왔습니다**. 이걸 **차자 표기**(借字, 借는 빌리다)라고 해요.

그런데 한자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한번 보세요.

(범 발톱 자국 찍)

鬱 (막힐 울)

鸕 (도요새 흘)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 ① 일단 어렵게 생겼습니다. 획이 스무 개가 넘는 글자도 흔했어요.
- ② 모양·뜻·소리가 서로 따로 놓입니다. 글자를 봐도 어떻게 읽는지 알 수가 없어요.
- ③ 그래서 익히는 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 글자는 ㄱ·ㄴ·ㅁ만 알면 어떻게 소리 내는지 짐작이 가죠.

한자는 그게 안 됩니다.

하나하나 통째로 외워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글자를 우리 식으로 비틀어 쓴 거예요.

유튜브 자막을 떠올려보세요

요즘 유튜브에서 아이돌 노래를 찾으면 **자막이 세 줄**로 나옵니다.

한글 — 나는 너를 사랑해

로마자 — na neun neo reul sa rang hae

영어 번역 — I love you

두 번째 줄을 보세요. 외국 팬을 위해 **한글을 소리 나는 대로 영어 글자로 적은** 겁니다.

모양	나	는	너	를	사	랑	해
뜻	I		you		love		
소리	na	neun	neo	reul	sa	rang	hae

외국 팬에게 **한글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뜻도 몰라요. **그냥 발음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팝송을 뜻도 모른 채 따라 부르는 것과 똑같죠.

향찰이 정확히 이 원리입니다.

한자를 우리말 적는 도구로 쓴 거예요. 다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빌려 쓰는 두 가지 방법

한자에는 **소리와 뜻**이 둘 다 있죠. 그래서 빌리는 방법도 둘입니다.

음차(音借) — 소리만 빌림. 뜻은 버림.

훈차(訓借) — 뜻만 빌림. 소리는 버림.

예시 ① — 거칠부 = 황종

신라 사람 이름입니다. 두 가지로 적혔어요.

표기	방법	어떻게
거칠부	음차	소리 '거칠'을 한자 소리로
황종(荒宗)	훈차	荒(거칠 황)의 뜻을 빌림

같은 사람인데 적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예시 ② — 길동군이 영동군이 된 사연

이건 재미있습니다.

표기	방법	읽기
길동군(吉同郡)	음차	吉(길), 同(동) → "길동군"
영동군(永同郡)	훈차	永(길 영) → "길동군"

둘 다 '길동군'으로 읽었습니다. 영은 '길다'라는 뜻이니 훈으로 읽으면 '길'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자가 익숙해집니다**. 사람들이 영을 뜻이 아니라 음으로 읽기 시작해요.

영동군(永同郡) → "영동군"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동네를 '긴 동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표기가 뜻을 바꿔버린 겁니다. 원래는 그냥 소리를 적은 것뿐이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기록에 그대로 있습니다

永同郡 本吉同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영동군(永同郡)은 본래 길동군(吉同郡)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으며, 지금 이를 그대로 쓰고 있다.
— 『삼국사기』 권제34

'永'은 뜻이 '길다'라 훈으로 읽으면 '길'이고, '吉'은 음이 '길'입니다.

같은 소리를 한쪽은 뜻으로, 한쪽은 음으로 적은 것 — 그래서 둘이 대응합니다.

이 대응이 성립한다는 것 자체가 고유어 '길-'의 뜻을 갖는 한자가 '永'이었다는 증거예요.

★ 예시 ③ — 실제 기록으로 봅시다. 『삼국사기』

앞의 둘은 설명을 위해 정리한 것이고, 이걸 역사서에 그대로 적혀 있는 문장입니다.

素那(或云金川) 白城郡蛇山人也

소나(素那)[또는 금천(金川)이라고 한다.]는 백성군(白城郡) 사산(蛇山) 사람이다.
— 『삼국사기』 권제47

한 사람 이름을 두 가지로 적어 놓고, 친절하게 '또는'이라고 붙여 두었습니다.

표기	방법	어떻게
素那	음차	素(힐 소) · 那(어찌 나) → 소리만 빌려 '소나'
金川	훈차	金(쇠 금) · 川(내 천) → 뜻을 빌려 '쇠내'

'소나'와 '쇠내'는 같은 이름의 다른 표기입니다. 흰 것(素)과 쇠(金)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쪽은 소리를, 한쪽은 뜻을 빌린 것뿐입니다.

💡 이 한 줄이 차자 표기의 전부를 보여줍니다.

음차와 훈차가 같은 대상에 나란히 쓰였고, 기록자도 그걸 알고 있었기에 '或云'(또는 이렇게 이른다)이라 적어 두었습니다.
글자가 없던 시절, 우리말 이름 하나를 남기려고 이만큼 애를 썼습니다.

★ 예시 ④ — 지명으로도 같은 일이. 『삼국사기』 「지리지」

사람 이름만이 아닙니다. 땅 이름도 똑같이 적었어요.

買忽 一云 水城

매홀(買忽)[또는 수성(水城)이라고 한다.]

— 『삼국사기』 「지리지」

고구려의 지명입니다. 앞의 素那와 완전히 같은 구조예요.

표기	방법	어떻게
買忽	음차	買(살 매) · 忽(문득 홀) → 소리만 빌려 '매홀'
水城	훈차	水(물 수) · 城(성 성) → 뜻을 빌려 '물성'

이 한 줄에서 고구려 말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곳을 '매홀'이라고도 하고 '水城'이라고도 했다면, 고구려 사람들은 '물'을 '매'와 비슷하게, '성'을 '홀'과 비슷하게 발음했다는 뜻이 됩니다.

💡 이게 고대국어 연구의 방법입니다.

고대국어는 **우리말로 적힌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자로 적힌 것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두 겹 표기를 모아** 소리를 되짚어 갑니다. '買 = 물' 같은 대응을 수백 개 쌓아 고구려어를 재구성하는 거죠.

차자 표기가 불완전한 기록이었기에 오히려 남은 단서입니다.

차자 표기의 발전 — 점점 우리말에 가까워집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흐름이 보여요.

	어순	형식형태소	특징
서기체	우리말 어순	×	어순만 바꿈
이두	우리말 어순	✓	조사·어미 추가
구결	한문 어순	✓	한문에 토를 닮
향찰	우리말 어순	✓✓	실질·형식 전부 표기

서기체 — 어순만 우리말로

한문 그대로인데 **배열만 우리말 순서**로 바꿉니다.

한문	서기체	뜻
自今 (자금)	今自 (금자)	지금으로부터
得大罪 (득대죄)	大罪得 (대죄득)	큰 죄를 얻다

한문은 '동사 + 목적어'인데 우리말은 '목적어 + 동사'죠. **그 순서만 바꾼 겁니다.**

임신서기식에 새겨진 방식이라 '서기체'라고 부릅니다.

아직 조사와 어미가 없어요. 읽는 사람이 알아서 넣어야 합니다.

이두 — 조사와 어미를 넣다

서기체에 **형식형태소**를 추가한 것입니다.

배본국(背本國) → 본국을 배반하고

한자로 조사 '을'과 어미 '고'를 적어 넣었어요. **훨씬 읽기 쉬워졌습니다.**

이두는 **조선 말엽까지** 실무 문서에 쓰였습니다. 오래 살아남았어요.

구결 — 한문에 토를 달다

어순은 한문 그대로 두고, 사이사이에 우리말 조사·어미만 끼워 넣습니다.

천지지간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귀하니
소귀호인자는 이기유오륜야라

구결 글자만 빼면 그대로 한문 원문이 됩니다. 그래서 한문을 처음 배우는 어린이 교재에 주로 썼어요.

 **구결은 한문 공부용, 이두는 우리말 기록용**입니다. 목적이 달랐어요.

★ 구결자는 한자를 줄여 쓴 것입니다

조사·어미를 한자로 다 쓰면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획을 줄여** 부호처럼 만들었어요.

구결자	원래 한자	무엇을 빌렸나	읽기
ㄱ	隱(숨을 은)	음	은
ㄴ	乙(새 을)	음	을
、	爲(ㅎ다 위)	뜻	ㅎ
ㅌ	飛(날 비)	뜻(일부)	ㄴ
ㅣ	多(많을 다)	음	다

0.1에서 본 음차와 훈차가 그대로 쓰였습니다. 다만 글자를 통째로 안 쓰고 획만 따온 게 다르죠.

💡 한글 자음처럼 생겼지만 한글이 아닙니다.

훈민정음보다 먼저 있던 것이고, 한자의 획을 줄인 부호예요. (훈민정음 창제 뒤에는 한글 구결자도 쓰입니다.)

★ 실제로 읽어봅시다 — 衆生發菩提心

한문 다섯 글자에 구결자를 겁니다.

衆生 ㄱ 菩提心 ㄴ 發 、 ㅌ ㅣ

중생은 보리심을 발 ㅎ ㄴ 다

(중생이 깨달음을 구하려는 마음을 낸다)

한문 원문은 '衆生發菩提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어순은 '중생은 → 보리심을 → 발한다'죠. 한문은 '發'이 앞에 오고 우리말은 뒤에 옵니다.

그래서 순서를 뒤집어 읽는 표시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역독점입니다. 글자 왼쪽에 점을 찍어 "여기는 건너뛰었다가 나중에 돌아와 읽어라"라고 표시했어요.

읽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 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되, 오른쪽 구결자만 읽습니다.
- ② 왼쪽에 구결자가 붙은 부분은 건너뛹니다.
- ③ 역독점을 만나면 다시 올라가 건너뛴 부분을 읽습니다.

한문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우리말 어순으로 재배열한 겁니다.

⚠ 이게 왜 대단한가

한문은 중국어입니다. 어순이 우리말과 달라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번역서 없이 원문에 점 몇 개를 찍어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문자가 없어도 읽는 방법은 만들어 낸 것이죠. 훈민정음이 나오기까지 천 년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향찰 — 가장 발달한 형태

우리말 어순 + 실질형태소와 형식형태소를 전부 표기.

말 그대로 우리말을 통째로 적은 것입니다. 차자 표기의 정점이에요. 향가를 적는 데 쓰여서 이름도 '향찰'입니다.

★ '石乙投多'를 읽어봅시다

네 글자를 놓고 봅시다.

모양	石	乙	投	多
뜻	돌	새	던지다	많다
소리	석	을	투	다

지금 우리는 이것 어렵지 않게 "석을투다"라고 읽겠죠. 소리 부분만 쓰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石乙投多 → 돌을 던지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글자마다 뜻과 소리 중 하나를 골라 쓴 겁니다.

글자	어느 쪽을 썼나	결과
石	뜻 (훈독)	돌
乙	소리 (음독)	을
投	뜻 (훈독)	던지-
多	소리 (음독)	-다

'乙'은 '새'라는 뜻인데 새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을'이라는 소리가 필요해서 빌려 온 거예요. 유튜브 자막의 reul 과 똑같습니다.

★ 무엇을 뜻으로 읽고 무엇을 소리로 읽었을까요

여기에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2권에서 배운 개념이 그대로 나옵니다.

실질적·의미적인 부분 → 뜻으로 (훈독)
문법적·형식적인 부분 → 소리로 (음독)

	무엇	어떻게
실질 형태소	돌(石) · 던지-(投)	훈독
형식 형태소	-을(乙) · -다(多)	음독

2권 0.2에서 배운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여기서 그대로 작동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뜻이 있는 부분은 한자의 뜻을 쓰는 게 자연스럽고, 조사나 어미처럼 문법 기능만 하는 부분은 대응하는 한자가 없으니 소리만 빌린 겁니다.

💡 다만 100퍼센트 딱 맞는 법칙은 아닙니다. 예외가 꽤 있어요.
그래도 **향찰의 많은 부분이 이 방식**을 따릅니다. 이것만 알아도 향가 지문이 훨씬 덜 무섭습니다.

★ 진짜 향가를 읽어봅시다 ★★★★★

'石乙投多'는 원리를 보여주려고 만든 예였습니다. 이제 진짜를 봅시다.

① 『서동요』 — 『삼국유사』 권제2

향가 중 가장 짧고 가장 유명합니다. 첫 구절만 봐도 향찰의 원리가 다 보여요.

善化公主主隱
선화 공주님은

여섯 글자를 하나씩 뜯어봅시다.

표기	어떻게 읽었나	왜
善化公主	선화공주 (그대로)	고유 명사, 한자어 그대로
主	뜻으로 → '임'	主는 임금 주. 높이는 말 '님'을 적으려고 뜻을 빌림
隱	소리로 → '은'	隱은 숨을 은. 숨는 것과 무관, '은'이라는 소리만 필요

主隱 → '님은'

앞의 主는 뜻으로, 뒤의 隱은 소리로 읽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배운 그대로예요 — 실질적인 부분은 뜻, 문법적인 부분은 소리. '님'은 뜻이 있는 말이고 '은'은 조사니까요.

같은 글자 '主'가 한 줄 안에서 두 번 나오는데 쓰임이 다릅니다. 앞의 '公主'는 한자어 그대로, 뒤의 '主'는 우리말 '님'. 이게 향찰을 읽기 어렵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② 「처용가」 — 『삼국유사』 권제2

신라 헌강왕 때 처용이 지은 향가입니다. 두 구절을 봅니다.

東京明期月良

夜入伊遊行如可

東京 불기 드라라

밤 드리 노니다가

(김완진 역)

동경(지금의 경주) 밝은 달에 밤들도록 노닐다가

둘째 줄 일곱 글자를 판별해 봅시다. 뜻으로 읽었을까요, 소리로 읽었을까요.

표기	夜	入	伊	遊	行	如	可
글자의 뜻	밤	들	저	놀	닐(=갈)	다(=갈을)	옴을
글자의 소리	야	입	이	유	행	여	가
어느 쪽?	뜻	뜻	소리	뜻	뜻	뜻	소리
읽으면	밤	드-	-리	노-	-니	다-	-가

夜入伊遊行如可 → 밤 드리 노니다가

뜻으로 읽은 것(夜入遊行如)은 전부 실질적인 부분이고, 소리로 읽은 것(伊可)은 전부 어미입니다.

💡 여기서 향찰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보입니다.

'노니다가'라는 한 덩어리를 네 글자로 쪼개 적었어요. 遊(놀)+行(니)로 어근을 만들고, 如(다)+可(가)로 어미를 붙였습니다. 우리말의 짜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가능한 표기입니다. 한자를 빌렸을 뿐, 분석은 철저히 우리말 문법이었어요.

⚠️ 향가 해독은 학자마다 다릅니다

「처용가」의 이 구절도 양주동 해독과 김완진 해독이 다릅니다. 천 년 전 표기라 확정할 수가 없어요.

시험에서는 해독을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대어 풀이를 주고 "어느 글자를 뜻으로 읽었는가"를 묻습니다. 원리만 잡으세요.

향찰은 왜 사라졌을까요

향가가 사라지면서 같이 사라졌습니다. 이두와 구결은 실무 문서에 쓰여 조선까지 살아남았는데, 향찰은 향가 전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향찰은 너무 번거로웠습니다. 글자마다 뜻으로 읽을지 소리로 읽을지 판단해야 하니까요. 훈민정음이 나오자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 총정리 — 차자 표기 한 장에 ★★★★★

여기까지가 훈민정음 이전의 천 년입니다. 한 번에 묶어 봅니다.

★ 먼저 — 두 가지를 헷갈리지 마세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꼬이는 자리입니다.

음차·훈차는 '글자 하나'를 어떻게 읽느냐
서기체·이두·구결·향찰은 '문장 전체'를 어떻게 적느냐

층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두는 음차인가요?" 같은 질문은 성립하지 않아요. 이두 안에서 음차도 쓰고 훈차도 씁니다.

	무엇을 다루나	종류
차자 방법	글자 하나	음차 (소리를 빌림) · 훈차 (뜻을 빌림)
표기 체계	문장 전체	서기체 · 이두 · 구결 · 향찰

비유하자면 붓과 그림입니다. 음차·훈차는 붓이고, 네 가지 체계는 그 붓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 차자 방법 두 가지 — 다시 확인

	무엇을 빌리나	예
음차(音借)	한자의 소리만. 뜻은 버림	乙(새 을) → 조사 '을'
훈차(訓借)	한자의 뜻만. 소리는 버림	水(물 수) → '물'

같은 대상을 둘로 적은 기록이 셋 있었죠.

기록	음차	훈차	무엇
『삼국사기』 권47	素那(소나)	金川(쇠내)	사람 이름
『삼국사기』 「지리지」	買忽(매홀)	水城(물성)	고구려 지명
『삼국사기』 권34	吉同(길동)	永同(길동)	고을 이름

음차와 훈차가 같은 대상에 나란히 쓰였다는 게 결정적입니다
그 대응 덕분에 우리는 천 년 전 발음을 되짚을 수 있습니다.

★ 표기 체계 네 가지 — 한눈에

	어순	조사·어미	무엇을 적으려고	대표 자료	언제까지
서기체	우리말	×	우리말 어순만 반영	임신서기석	초기
이두	우리말	○	우리말 문장 기록	실무 문서	조선 말
구결	한문	○	한문을 읽기 위한 토	불경·경전	조선 말
향찰	우리말	◎	우리말을 통째로	향가	고려 중기

★ 셋을 갈라 보는 질문

① 서기체와 이두는 무엇이 다른가

조사와 어미가 있느냐입니다.

서기체 — 今自 (지금으로부터). 어순만 우리말, 조사는 읽는 사람이 알아서 넣음

이두 — 背本國 을 "본국을 배반하고"로. 형식 형태소를 적어 넣음

② 이두와 구결은 무엇이 다른가

어순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다릅니다.

이두 — 우리말 어순. 우리말을 적으려고

구결 — 한문 어순 그대로. 한문을 읽으려고

구결자만 걷어내면 한문 원문이 그대로 남습니다. 이두는 그렇지 않아요.

③ 구결과 향찰은 무엇이 다른가

구결은 남의 글을 읽는 도구, 향찰은 우리 글을 적는 도구입니다.

구결은 한문에 얹은 것이고, 향찰은 처음부터 우리말을 적은 것이예요.

한 줄로 — 이두는 쓰기, 구결은 읽기

★ 왜 이런 순서로 발전했나

전부 같은 문제를 풀려던 것입니다.

"한자로 우리말을 어떻게 적지?"

한자는 중국어를 적으려고 만든 글자입니다. 우리말과는 어순도 다르고, 조사와 어미도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차례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① 어순 문제 → 서기체가 풀었습니다

② 조사·어미 문제 → 이두가 풀었습니다

③ 그런데 한문 원문도 읽어야 한다 → 구결이 나왔습니다

④ 우리말을 완전히 적고 싶다 → 향찰까지 갔습니다

향찰이 정점이었지만 너무 번거로웠습니다. 글자마다 뜻으로 읽을지 소리로 읽을지 판단해야 했으니까요.

💡 그래서 훈민정음이 나온 겁니다.

세종이 푼 것은 "한자를 어떻게 빌릴까"가 아니라 **"빌리지 말고 새로 만들자"**였어요.

천 년 동안 아무도 그 답을 못 낸 게 아닙니다. 그 답을 낼 수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 시험은 이렇게 묻습니다

묻는 방식	무엇을 보면 되나
"다음 표기법의 이름은?"	어순과 조사·어미 유무 두 개만 확인
"㉠을 음차로 읽었는가 훈차로 읽었는가?"	그 한자의 뜻이 문맥과 통하면 훈차, 아니면 음차
"이 표기법의 한계는?"	서기체=조사·어미 없음 / 구결=우리말 문장이 아님 / 향찰=너무 번거로움

⚠️ 향가 해독을 외우려 하지 마세요

학자마다 다르고, 시험도 해독을 묻지 않습니다. **현대어 풀이를 주고 "어느 글자를 뜻으로 읽었나"를 물어요.**

실질 형태소는 뜻으로, 형식 형태소는 소리로 — 이 원칙 하나면 대부분 풀립니다.

확인문제 0.1

1. 차자 표기가 무엇인지 한자 뜻과 함께 설명하세요.
2. 음차와 훈차의 차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세요.
3. '길동군'이 '영동군'이 된 과정을 설명하세요.
4. 서기체·이두·구결·향찰을 어순과 형식형태소 유무로 구별하세요.
5. 구결과 이두는 쓰임이 어떻게 달랐나요?
6. 한자가 배우기 어려웠던 세 가지 이유를 쓰세요.
7. 유튜브 로마자 자막과 향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세요.
8. '石乙投多'를 어떻게 읽었는지, 각 글자를 뜻과 소리 중 무엇으로 읽었는지 쓰세요.
9. 향찰에서 훈독과 음독을 가르는 기준을 쓰세요.
10. 향찰이 일찍 사라진 이유는?
11. 『삼국사기』의 '素那(或云金川)'에서 어느 쪽이 음차이고 어느 쪽이 훈차인지 밝히고, 근거를 쓰세요.
12. 『서동요』의 '善化公主主隱'에서 '主'가 두 번 나옵니다. 두 '主'의 읽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13. 『처용가』의 '夜入伊遊行如可'는 밤 드리 노니 다가로 읽습니다. 일곱 글자 중 소리로 읽은 것을 모두 고르고, 그 글자들의 공통점을 쓰세요.
14. '賈忽 一云 水城'에서 음차와 훈차를 가르고, 이 한 줄로 고구려 말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쓰세요.
15. 구결자 'ㄱ·ㄴ·ㅇ·ㅍ·ㅑ·ㅓ·ㅕ·ㅗ·ㅛ·ㅜ·ㅝ·ㅟ·ㅠ'는 각각 어느 한자에서 왔고, 음과 뜻 중 무엇을 빌린 것인지 쓰세요.
16. 한문에 역독점을 찍어야 했던 이유를 어순으로 설명하세요.

STAGE 01 CLEAR

차자 표기 — 글자가 없던 시절

다음 02 · 훈민정음 제자 원리

남은 것 9 / 10

0.2 훈민정음 제자 원리

★★★★

CHAPTER 02 / 10

땅 파기

우리 연장이 만들어집니다.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글자들입니다.



①

강의 0.2

① 제자 원리

휴대폰 카메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립니다.

1443년, 드디어 우리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훈민정음이 대단한 건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원리를 **만든 사람이 직접 기록**해 두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에요.

자음 17자 — 발음 기관을 본뒀습니다

① 상형(象形) —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② 가획(加) — 획을 더함

③ 이체(異體) — 모양을 달리함

① 상형 — 기본 다섯 글자

글자	본뜬 것	1권에서 배운 이름
ㄱ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여린입천장소리
ㄴ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윗잇몸소리
ㄷ	입 모양	입술소리
ㄹ	이 모양	잇소리
ㅇ	목구멍 모양	목청소리

★ 1권 0.2를 기억하세요

조음 위치 다섯 자리를 배웠죠. **입술 · 잇몸 · 센입천장 · 여린입천장 · 목청.**

훈민정음의 기본 다섯 글자가 정확히 그 다섯 자리입니다.

세종은 발음 기관을 관찰해서 글자를 만들었어요. **글자 모양 자체가 발음 설명서**인 겁니다.

② 가획 — 소리가 세지면 획을 더합니다

기본	획 하나	획 둘
ㄱ	ㅋ	
ㄴ	ㄷ	ㄹ
ㄷ	ㅌ	ㄺ
ㄴ	ㄸ	ㄻ
ㅇ	ㅇ	ㅇ

획이 늘어날수록 소리가 세집니다. ㄴ보다 ㄷ이 세고, ㄷ보다 ㄹ이 세죠.

글자 모양만 봐도 소리의 세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자는 세계에 거의 없어요.

③ 이체 — 셋만 예외

ㅇ (옛이음) · ㄹ · ㅅ (반치음)

이 셋은 **가획의 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모양은 비슷한데, 소리가 세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모양'이라는 뜻의 **이체자**라고 합니다.

모음 11자 — 하늘·땅·사람을 본떴습니다

① 상형(象形) — 천지인(天地人)을 본뜬

② 합용(合用) — 기본자를 합쳐서 만들

① 상형 — 기본 세 글자

글자	본뜻 것	모양
丶 (아래아)	하늘(天)	둥근 점
一	땅(地)	평평한 선
丨	사람(人)	서 있는 선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고, 사람은 서 있죠.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② 합용 — 합쳐서 만듭니다

초출자 — 기본자를 한 번 합침 (4자)

丶 + 一 = 亠 | + 丶 = 乚
一 + 丶 = 乚 丶 + | = 乚

재출자 — 초출자에 丶를 한 번 더 더함 (4자)

ㄱ · ㄴ · ㄷ · ㄹ

점이 하나면 초출, 둘이면 재출입니다. 지금 글자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죠. ㄱ와 ㄴ, ㄴ와 ㄷ를 보세요.

정리

	개수	방법
기본자	3	상형 (천지인)
초출자	4	亠 乚 ㄱ ㄴ
재출자	4	ㄴ ㄷ ㄹ ㅁ
합계	11	

확인문제 0.2

1. 자음의 제자 원리 셋을 쓰세요.
2. 상형의 기본 다섯 글자와 각각 본뜻 것을 쓰세요.
3. 가획의 원리를 예를 들어 설명하세요.
4. 이체자 셋을 쓰고, 왜 이체자인지 설명하세요.
5. 모음의 기본 세 글자와 본뜻 것을 쓰세요.
6. 초출자와 재출자를 각각 쓰고 차이를 설명하세요.

STAGE 02 CLEAR

훈민정음 제자 원리

다음 03 · 사라진 글자와 소리 · 성조

남은 것 8 / 10

책을 덮고 시작하세요. 왼쪽에는 **글자가 없던 시절**의 표기법을, 오른쪽에는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그리세요.

힌트 — 차자 표기 넷은 **점점 우리말에 가까워지는** 순서로 그려보세요.

차자 표기

→

훈민정음

다 그렸나요? — 이제 확인하세요. 빠진 항목 옆의 번호가 돌아갈 단계입니다.

☐ 시대 구분 다섯 · 중세 후기의 연대 0

☐ 중세 후기가 중요한 이유 0

☐ 음차와 훈차 0.1

☐ 길동군이 영동군이 된 과정 0.1

☐ 서기체·이두·구결·향찰의 차이 0.1

☐ 자음 제자 원리 셋 0.2

☐ 상형 기본 다섯 글자와 본뜬 것 0.2

☐ 가획의 원리 0.2

☐ 이체자 셋 0.2

☐ 모음 기본 셋 · 초출 · 재출 0.2

제로투원 국어문법 · 중세국어

32

윤선생

0.3 사라진 글자와 소리 · 성조

지금은 없어진 자재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소리의 높낮이를요.



①



②

강의 0.3 — 영상 2개

- ① 성조·방점
- ② 순경음 비읍

휴대폰 카메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립니다.

훈민정음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다섯 개예요.

글자	이름	어떤 소리
ㆍ	아래아	ㅏ와 ㅑ의 중간쯤
ㄹ	반치음	ㄴ의 울림소리
ㅍ	순경음 비읍	ㅂ의 약한 소리
ㅇ	옛이음	받침 ㅇ 소리를 초성에서도
ㅎ	여린 히읗	아주 약한 ㅎ

언제 사라졌을까요

ㅍ · ㅎ · ㄹ · ㅇ 순서로 15~16세기에 대체로 사라집니다.

ㆍ (아래아)가 가장 오래 버텼습니다. 소리는 18세기쯤 사라졌지만 글자는 **1933년까지** 쓰였어요. 소리가 없어도 관습으로 계속 적은 겁니다.

💡 제주 방언에는 아래아 소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 아래아는 두 번에 걸쳐 사라졌습니다

한 번에 없어진 게 아닙니다. 자리에 따라 시차가 있었어요.

1단계 (16세기) — 둘째 음절 이하의 ㆍ → ㅡ

2단계 (18세기) — 첫째 음절의 ㆍ → ㅏ

원래	1단계 후	2단계 후	지금
ㅁ ㅅ ㅅ	ㅁ ㅅ ㅅ	ㅁ ㅅ ㅅ	ㅁ ㅅ ㅅ
ㅎ ㅅ ㅅ	ㅎ ㅅ ㅅ	하 ㅅ ㅅ	하 ㅅ ㅅ
ㄱ ㄹ ㅅ ㅅ	ㄱ ㄹ ㅅ ㅅ	가 ㄹ ㅅ ㅅ	가 ㄹ ㅅ ㅅ

뒤부터 무너지고 앞이 나중에 무너졌습니다.

💡 단어 하나로 두 단계를 다 볼 수 있습니다.

ㅁ ㅅ ㅅ의 둘째 ㆍ는 ㅡ가 되고, 첫째 ㆍ는 ㅏ가 됐어요.

몇째 음절이냐만 보면 어느 단계인지 알립니다.

★ 'ㄱ'와 'ㄴ'은 원래 이중모음이었습니다

지금은 단모음이지만 중세에는 둘 다 이중모음이었어요.

ㄱ = ㅏ + ㅏ · ㄴ = ㅓ + ㅓ

근거가 있습니다. 'ㅏ' 모음 뒤에서 주격 조사가 사라지는 규칙을 기억하세요.

부터 + ㅏ → 부테 (모음 뒤라 주격 ㅏ가 붙음)

그런데 빼(뺨)나 丙 같은 말 뒤에서는 주격 조사가 안 붙습니다.

'ㄴ'이 이미 안에 'ㅏ'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ㅏ'로 끝나는 말로 취급된 거예요.

그러다 두 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단모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모음이 열 개인 거고요.

★ 단모음 체계 — 일곱에서 열로

중세국어의 단모음은 일곱 개였습니다.

	중세국어 7개	현대국어 10개
앞	ㅣ	ㅣ ㄱ
가운데	ㅡ · ㅌ	ㅡ · ㅌ
	ㅏ · ㅑ	ㅐ · ㅓ · ㅕ · ㅗ
뒤	ㅓ · ㅕ	ㅖ · ㅗ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 ① ㅏ, ㅑ (아래아)가 사라졌습니다 — 하나 줄어듦
- ② ㅐ, ㅓ, ㅕ, ㅗ가 단모음으로 들어왔습니다 — 넷 늘어남

$7 - 1 + 4 = 10$. 이게 지금의 단모음 체계입니다.

💡 넷 다 원래 이중모음이었습니다.

ㅐ (ㅓ + ㅣ) · ㅓ (ㅕ + ㅣ) · ㅕ (ㅗ + ㅣ) · ㅗ (ㅌ + ㅣ) — 전부 뒤에 ㅣ가 붙은 꼴이죠.
그 ㅣ가 앞 모음과 합쳐지면서 하나의 소리가 된 겁니다.

🔪 그런데 지금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ㅓ와 ㅕ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표준으로 인정됩니다(6권 0.7). 실제로 [we]·[wi]로 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ㅐ와 ㅓ도 구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네 일 내 일 구분하지 말자"가 [네]와 [내]로 갈리지 않죠.

1단계에서 볼 '국어는 지금도 변한다'가 여기서도 진행 중입니다.

★ 시간 순서로 다시 보면 — 네 번의 개편

7에서 10으로 한 번에 간 게 아닙니다. 네 단계를 거쳤어요.

시기	단모음	무슨 일이
15세기 (훈민정음 창제)	7개 ㅣ ㅡ ㅏ ㅑ ㅓ ㅕ ㅗ	출발점
18세기	8개 ㅣ ㅡ ㅏ ㅑ ㅓ ㅕ ㅗ ㅛ	ㅛ, 소멸 · 이중모음 ㅟ ㅠ가 단모음으로
19세기	10개 ㅣ ㅟ ㅡ ㅏ ㅑ ㅓ ㅕ ㅗ ㅛ ㅜ	이중모음 ㅟ ㅠ가 단모음으로
현재	10개 (흔들리는 중)	ㅟ ㅠ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 발음상 ㅟ와 ㅠ의 구별이 없어지는 중

하나가 죽고 넷이 들어왔다가, 지금 다시 넷이 흔들립니다

모음 체계는 500년 동안 **원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ㅟ/ㅠ 혼동도 그 흐름의 한 장면이에요.

💡 **이건 국가가 논의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를 둡니다. **어문 규범의 제정과 개정**을 심의하는 기구예요.

ㅟ와 ㅠ의 표준 발음을 앞으로 어떻게 정할지도 **여기서 다뤄질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는 발음이 훗날의 규범을 만듭니다. 표준 발음법 제1항이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라고 한 이유죠.

성조와 방점

중세국어에는 소리의 **높낮이**가 뜻을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글자 왼쪽에 점을 찍어** 표시했어요.

성조	방점	소리
평성	없음	낮은 소리
거성	· 하나	높은 소리
상성	: 둘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입성	—	빨리 끝나는 소리

입성은 따로 점이 없습니다. 받침이 ㄱ·ㄷ·ㅂ이면 소리가 짧게 끊기는데, 그걸 입성이라 불렀어요. 높낮이가 아니라 끝나는 방식이라 앞의 셋과 층위가 다릅니다.

★ 1권의 장단이 여기서 왔습니다

상성을 보세요.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라고 했죠. 그러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짧으면 올라갈 시간이 없으니까요.

상성 = 낮은 소리 + 높은 소리를 붙인 것

그래서 상성은 자연히 길게 발음됐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 성조가 사라지면서,
높낮이는 없어지고 길이만 남았습니다.

중세국어	현대국어
눈 (평성) — 눈[目]	눈 (짧게)
:눈 (상성) — 눈[雪]	눈: (길게)
말 (평성) — 말[馬]	말 (짧게)
:말 (상성) — 말[言]	말: (길게)

1권 0.1에서 배운 그 장단이 원래는 성조였습니다.

눈[目]과 눈:[雪]이 왜 길이로 갈리는지, 이제 답이 나왔죠.

확인문제 0.3

1. 사라진 글자 다섯을 쓰고 각각의 이름을 쓰세요.
2. 아래아가 특별한 이유를 쓰세요.
 - 2-1. 아래아가 사라진 두 단계를 쓰고, 'ㅁ ㄹ'로 각각 보이세요.
 - 2-3. 단모음이 7개에서 10개가 되기까지의 네 시기를 쓰고, 각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세요.
 - 2-2. 중세의 'ㅈ·ㅊ'가 이중모음이었다는 근거를 주격 조사로 설명하세요.
3. 성조 넷과 방점을 쓰세요.
4. 입성이 앞의 셋과 총위가 다른 이유는?
5. 상성이 왜 긴소리로 남았는지 설명하세요.
6. '눈[目]'과 '눈[雪]'의 중세 성조를 각각 쓰세요.
7. 중세국어의 단모음이 몇 개였는지 쓰고, 현대국어의 열 개가 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세요.

STAGE 03 CLEAR

사라진 글자와 소리 · 성조

다음 04 · 표기법

남은 것 7 / 10

0.4 표기법

적는 방식을 봅니다. 이 책에서 가장 까다로운 공정입니다.

강의 0.4 — 영상 4개



- ① 이어적기·끊어적기
- ② 자음 운용 방식
- ③ 어두자음군
- ④ 8종성

휴대폰 카메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립니다.

이 단계가 이 책의 고비입니다. 그런데 원리는 하나예요.

소리 나는 대로 적을 것인가, 형태를 밝혀 적을 것인가

중세는 소리 쪽이었고, 지금은 형태 쪽입니다.

그 사이를 오간 기록이 표기법의 역사고요.

이어적기 · 끊어적기 · 거듭적기 ★★★★★

'사람이'를 어떻게 적을지 생각해봅시다.

소리는 [사라미]죠.

방식	표기	원리
이어적기(연철)	사라미	소리 나는 대로
끊어적기(분철)	사람이	형태를 밝혀
거듭적기(중철)	사람미	둘 다 (과도기)

중세국어는 이어적기가 원칙이었습니다.

근대로 오면서 끊어적기로 바뀌고, 그 중간에 거듭적기가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 맞춤법은 끊어적기입니다. '사람이'라고 쓰지 '사라미'라고 안 쓰죠.

거듭적기가 왜 생겼을까요? 옛 방식과 새 방식이 부딪히던 시기라 그렇습니다. 받침을 앞에도 쓰고 뒤에도 쓴 거예요. 어중간한 형태라 오래 못 갔습니다.

글의 생김새 — 세로쓰기 · 띄어쓰기 없음

표기법을 이야기할 때 빠뜨리기 쉬운 두 가지입니다.

- ① 세로쓰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오른쪽 위에서 시작해 아래로 내려갑니다
- ②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글자가 꼭 이어져 있어요

『세종어제훈민정음』 원본을 보면 바로 보입니다. 세로로 늘어서 있고, 어디서 끊어야 할지 표시가 없죠.

💡 그럼 어떻게 읽었을까요.

방점이 도움이 됐습니다. 성조를 표시한 것이지만 글자마다 왼쪽에 찍혀 있어 눈이 따라가기 좋았어요.

그리고 한문 독서의 전통이 있어서 끊어 읽는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띄어쓰기는 19세기 말에 들어왔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의 영향이었고, 『독립신문』(1896)이 본격적으로 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 기출은 이렇게 묻습니다.

"현대 국어와 달리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 중세국어 지문 선지의 단골입니다.

원문을 보여주고 "현대 국어와 다른 표기상의 특징"을 고르라고 하면 이것도 답이 됩니다.

중성 규정 — 받침을 어디까지 쓸까

훈민정음에는 두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중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 — 중성은 초성을 다시 쓴다

→ 모든 자음을 받침에 쓸 수 있음

8중성가족용(八終聲可足用) — 여덟 자면 충분하다

→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실제로는 8종성법을 따랐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었으니까요.

★ 1권 0.5의 음절 끝소리 규칙

현대국어 받침은 **일곱 개**입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ㅇ — '가느다란 물방울'이요.

중세는 **여덟 개**였습니다. ㅅ이 하나 더 있었어요.

중세에는 ㅅ 받침이 ㄷ과 구별돼서 발음됐거든요. 나중에 합쳐지면서 일곱이 됐습니다.

어두자음군 — 첫소리에 자음이 여럿

지금은 첫소리에 자음이 하나만 옵니다.

그런데 중세에는 둘, 셋도 왔어요.

계열	자음군	지금은
ㄱ계	ㄱㄱ · ㄱㄷ · ㄱㅅ	꿈 · 딸 · 뿔
ㄴ계	ㄴㄷ · ㄴㅅ · ㄴㅊ · ㄴㅌ	뚛 · 쌀 · 짹 · 타고
ㅅ계	ㅅㄱ · ㅅㄷ	꿀 · 때(時)

전부 된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자음 두세 개를 연달아 내던 것이 하나의 센소리로 뭉친 거예요.

💡 '좁쌀'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쌀'이 옛날에 ㄴ계 어두자음군이었어요. 그래서 '조 + 쌀'이 '좁쌀'이 된 겁니다.

'몹쌀', '헝쌀'도 마찬가지예요. 사라진 ㅂ이 앞말에 붙어 살아남았습니다.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세종은 한자음도 정리하려 했습니다.

『동국정운』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특징	무엇
이상적 한자음	실제 우리 발음이 아니라 중국 원음에 가깝게 고친 것
형식 중성	받침이 없어도 ㅇ이나 ㅁ을 채워 넣음
이영보래(以影補來)	ㄹ 받침 뒤에 ㅎ 을 덧붙임

이영보래는 이름이 어렵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影(ㅎ)으로 來(ㄹ)을 **보충한다**는 말이에요. 한자음 '월(月)' 같은 것을 **원음에 가깝게** 만들려고 ㅎ을 붙인 겁니다.

동국정운식 표기는 오래 못 갔습니다. 실제 발음과 너무 달랐거든요. 이상은 좋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확인문제 0.4

1. 표기법 전체를 지배하는 한 가지 질문을 쓰세요.
2. 이어적기·끊어적기·거듭적기를 '사람이'로 각각 써보세요.
3. 중세국어의 원칙은 셋 중 무엇이었나요? 지금은요?
4. 중성부용초성과 8중성가족용을 설명하세요.
5. 중세의 받침이 여덟이고 현대가 일곱인 이유는?
6. 어두자음군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7. '좁쌀'에 ㅂ이 들어간 이유를 설명하세요.
8. 중세국어 글의 생김새가 지금과 다른 점 두 가지를 쓰세요.
9. 띄어쓰기가 없는데도 읽을 수 있었던 까닭을 하나 쓰세요.

STAGE 04 CLEAR

표기법

다음 05 · 음운의 변천

남은 것 6 / 10

0.5 음운의 변천

★★★★

CHAPTER 05 / 10

기둥 세우기

소리가 500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따라갑니다.

강의 0.5 — 영상 4개



- ① 모음 조화
- ② 두음법칙·구개음화·원순모음화
- ③ 어휘 의미 변화
- ④ 동국정운식 표기

휴대폰 카메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립니다.

소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봅니다. 앞 권의 회수가 여기 몰려 있어요.

모음조화 — 끼리끼리 어울리다

중세국어에서는 모음이 성질에 따라 편을 갈랐습니다.

계열	모음	느낌
양성모음	ㅏ, ㅑ, ㅓ, ㅕ	밝고 가벼움
음성모음	ㅓ, ㅕ, ㅗ, ㅛ	어둡고 무거움
중성모음	ㅣ	어느 쪽과도 어울림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붙습니다.

앞말	붙는 조사
나 (양성)	나 ^를 (양성 조사)
너 (음성)	너 ^를 (음성 조사)
밥 (양성)	밥 ^을
들 (음성)	들 ^을

중세에는 이 규칙이 아주 엄격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무너졌어요.

지금 남은 흔적 — 강충강충 / 꺽충꺽충, 알록달록 / 얼룩덜룩, 줄줄 / 줄줄
1권 0단계에서 말한 양성모음·음성모음이 이겁니다.

아래아(ㆍ)가 사라지면서 모음조화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양성 쪽 기둥이 하나 빠진 셈이니까요.

★ 소리 하나가 사라지자 단어 하나가 죽었습니다

아래아 소멸의 결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중세국어에는 비슷하게 생긴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중세	뜻
하 다	하다 (do)
하 다	많다 · 크다

완전히 다른 단어였습니다. 아래아와 ㅏ가 다른 소리였으니까요.

그런데 ㅏ가 사라지면서 하 다가 '하다'가 됐습니다. 두 단어가 똑같은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한쪽이 밀려났습니다.

많다·크다를 뜻하던 '하다'가 사라지고, 지금은 do의 뜻만 남았어요.

소리 하나가 없어지자 단어 하나가 죽은 겁니다.
훈민정음 서문 마지막의 하나라가 바로 그 '하다'입니다. "많다"는 뜻이에요.

중세에는 없었던 것들

지금 있는 규칙 중 상당수가 중세에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생긴 거예요.

① 원순모음화가 없었습니다

입술소리(ㅁㅂㅍ) 뒤의 ㄱ이 ㄴ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중세	현대
믈	물
블	불
플	풀
브터	부처

ㅁ·ㅂ·ㅍ은 입술을 오므려 내는 소리죠. 그 여파로 뒤의 모음까지 오므려진 겁니다.

② 구개음화가 없었습니다

중세	현대
더	저
동다	종다
티다	치다
턴디	천지

★ 1권 0.5를 기억하세요

ㄷ·ㅌ이 'ㅣ' 앞에서 ㅈ·ㅊ으로 바뀌는 게 구개음화였죠.

중세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동다'를 그대로 [동다]로 읽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그냥 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구개음화는 ㄷ·ㅌ이 **센입천장소리(구개음)**인 ㅈ·ㅊ으로 바뀌는 현상이죠. 그런데 —

중세국어의 ㅈ·ㅊ은 센입천장소리가 아니라 잇소리(치음)였습니다.

바뀌어 갈 자리가 아직 없었던 겁니다. 나중에 ㅈ·ㅊ이 센입천장 쪽으로 옮겨간 뒤에야 구개음화가 가능해졌어요.

지금 우리가 '해돋이'를 [해도지]로 읽는 건 **소리가 자리를 옮긴 결과**입니다.

③ 두음법칙이 없었습니다

첫소리에 ㄹ이나 ㄴ이 오는 걸 꺼리는 규칙입니다.

중세	현대
라귀	나귀
니르다	이르다
님금	임금

중세에는 첫소리 ㄹ·ㄴ이 아무렇지 않았습니니다.

💡 **북한말에는 두음법칙이 없습니다.** '로동신문', '리발관'처럼요. 원래 우리말이 그랬던 겁니다.

의미의 변화

말은 살아 있어서 뜻이 변합니다. 세 방향이 있어요.

	무엇	예
확대	범위가 넓어짐	다리, 세수, 왕, 영감
축소	범위가 좁아짐	놈, 계집, 짐승, 얼굴
이동	뜻이 옮겨감	어리다, 어엿브다

💡 '영감'과 '얼굴'이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영감(令監) — 원래 **정삼품 이상 벼슬아치**를 부르던 말이었는데 지금은 **남자 노인**을 두루 이릅니다. (확대)

얼굴 — 원래 **형체 전체**를 뜻했는데 지금은 **안면**만 가리킵니다. (축소)

한 단어는 넓어지고 한 단어는 좁아졌어요. 방향을 물으면 **옛 뜻**과 **지금 뜻**의 범위를 견주면 됩니다.

★ 뜻이 정반대로 뒤집힌 말 — 쑈다 ★★★★★

의미 이동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경우입니다. 완전히 반대가 됐어요.

·빚·갑·손·쑈·던·가·디·던·가

·빚·갑·손·니·건·히·갑·과·한·가·지·라·하·더·라

베의 값은 비싸던가 낮던가?

베의 값은 지난해의 값과 한가지라 하더라.

— 『번역 노걸대』 상권(1510년대)

싸던가와 디던가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디다가 '값이 떨어지다'이니, 그 반대인 싸다는 '값이 비싸다'입니다.

중세 싸다 = 값이 비싸다
현대 '싸다' = 값이 낮다

정확히 반대로 뒤집혔습니다.

💡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싸다는 원래 "값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값을 치를 만하다" → "값이 나간다" → "비싸다"로 갔죠. 그런데 같은 뿌리에서 "값어치만 한다" → "값에 비해 물건이 낮다" → "싸다"로 가는 길도 열려 있었어요. 결국 뒤쪽이 이겼습니다.

한 단어 안에 반대 방향의 씨앗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 이 문장을 시험에서 만나면

"싸던가를 현대어로 옮기시오" — '비싸던가'입니다. '싸던가'로 옮기면 뜻이 정반대가 돼요.

옛글은 아는 단어가 나올 때 더 위험합니다. 모르는 단어는 찾아보지만, 아는 단어는 그냥 지나치니까요.

★ 2권에서 예고한 것들

단어	중세국어	현대국어
어리다	어리석다	나이가 적다
어엿브다	불쌍하다	예쁘다
어여쁘다		(어엿브다에서 온 말)
씩씩하다	엄숙하다	굳세다
인정	뇌물	따뜻한 마음

훈민정음 서문에 '어린 백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이 어린 백성이 아니라 '어리석은 백성', 즉 글을 모르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2권 1단계에서 미뤘었던 답이 이겁니다.

확인문제 0.5

1.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을 각각 쓰세요.
2. 모음조화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세요.
3. 모음조화가 흔들린 결정적 이유는?
4. 원순모음화의 예를 세 개 쓰고 원리를 설명하세요.
5. 중세에 구개음화가 없었다는 것을 '똥다'로 설명하세요.
6. 두음법칙이 없던 흔적이 지금 어디에 남아 있나요?
7. '어린 백성'의 '어린'은 무슨 뜻인가요?
8. '영감'과 '얼굴'의 의미 변화 방향을 각각 쓰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STAGE 05 CLEAR

음운의 변천

다음 06 · 체언과 조사

남은 것 5 / 10

사라진 글자, 성조, 표기법, 그리고 500년 동안의 변화를 한 장에 그리세요. **중세에 없었던 것**을 따로 묶어두면 정리가 됩니다.

힌트 — 표기법 전체를 지배하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사라진 것

표기법

새로 생긴 규칙

다 그렸나요? — 이제 확인하세요. 빠진 항목 옆의 번호가 돌아갈 단계입니다.

☐ 사라진 글자 다섯 **0.3**

☐ 성조 넷과 방점 **0.3**

☐ 상성이 긴소리로 남은 이유 **0.3**

☐ 표기법을 지배하는 한 가지 질문 **0.4**

☐ 이어적기·끊어적기·거듭적기 **0.4**

☐ 종성부용초성과 8종성가죽용 **0.4**

☐ 중세 받침이 여덟인 이유 **0.4**

☐ 어두자음군·좁쌀의 ㅁ **0.4**

☐ 모음조화와 그것이 흔들린 이유 **0.5**

☐ 중세에 없었던 규칙 셋 **0.5**

☐ 어리다·어엿브다의 원래 뜻 **0.5**

맞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뒤부터가 이 책의 중심입니다

- CHAPTER 06 체언과 조사
 - CHAPTER 07 어미와 높임
 - CHAPTER 08 중세국어 지문 읽는 법
 - CHAPTER 09 세종어제 훈민정음 전문
 - CHAPTER 10 용비어천가 · 여러 작품 · 근대국어
-

같은 책 두 판본 비교가 전부 뒤쪽에 있습니다.

두시언해 1481↔1632 · 노걸대 16C초↔1670 · 삼강행실도 1481↔1727

그리고 「효자 누백」 네 시대.

내용이 같으니 변수는 시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변했는지가 정확히 보입니다.

전체 155쪽 · 정답과 해설 · 강의 영상 QR 27개

